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신학 본론, 세션 2, 성경적 고찰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신학 자체 또는 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 성경적 사색입니다.

우리는 신에 대한 교리를 계속 연구합니다.

신학이라는 단어는 신에 대한 말이나 담론 또는 연구를 의미합니다. 신학, 따라서 모든 신학은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학은 본래 신 자신에 대한 교리입니다.

David Wells의 *God in the Whirlwind*에서 좋은 문화적 소개를 통해 도움을 받았기를 바라며,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로 넘어가거나, 사실 그 전에 소개를 하고, 하나님과 성경 이야기를 생각한 다음,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살펴봅니다. 성경 이야기 속의 하나님. 성경은 창조, 타락, 구원, 새 창조 또는 완성에 대한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이야기의 저자이십니다(에베소서 1:11). 하나님은 또한 주인공이시며, 스토리라인은 하나님과 그가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십니다. 언약의 주님으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반항할 때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구속자로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승리자로서 하나님은 정의가 승리하고 그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것을 보장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31과 2:1. 공간, 시간 또는 물질이 존재하기 전에, 영원한 신은 이미 존재합니다. 선재하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신은 자유롭고, 은혜롭고, 강력하게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합니다. 그는 자신의

말씀으로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 1, 시편 33편, 6절과 9절. 정말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시편 33편, ESV에서 읽어보세요, 6,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만들어졌고, 그의 입의 숨결로 모든 만상이 만들어졌습니다. 9절, 그가 말씀하시니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명령하였고 그것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으로 보존하십니다. 골로새서 1:16,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함께 서거나 유지됩니다.

히브리서 1:3, 그리스도: 흥미롭게도, 이 두 구절은 모두 그리스도론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해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그의 강력한 말씀으로 또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십니다.

그것이 그 텍스트입니다. 하느님도 마찬가지로 그의 세계를 다스리시며, 신비롭게 그의 목표를 향해 인도하십니다. 에베소서 1:9과 10, 이것이 섭리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보존과 통치. 보존은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세상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통치는 하나님이 세상을 자신의 목적, 목적, 영광을 향해 인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9과 10은 놀라울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그의 목적에 따라 때가 차기까지 계획하신 것으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합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9과 10.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며, 그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계시록 4:11,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뜻으로 그것들이 존재하고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면류관은 아담과 이브를 그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축복하여 그들이 마음과 몸과 삶으로 그를 알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는 그들의 주님이시며, 그들은 작은 주인, 소문자 1, 그의 좋은 창조물의 청지기로서 기능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 서로, 그리고 그의 세상과 적절한 관계 속에서 그들을 만듭니다. 그들은 창조주의 이름의 장엄함을 영원히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8, 1, 9편, 오 주여, 우리 주여, 당신의 이름은 온 땅에 얼마나 위엄이 있습니까.

슬프게도 아담과 이브는 그에게 반항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에게 불충실합니다. 그들의 반항은 그와의 관계, 서로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들의 반란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에 무질서와 고통을 가져온다. 그들은 구원자가 필요했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즉시 구원자를 약속하신다. 아담과 이브를 에덴에서 쫓아내기 전에, 그는 창세기 3:15에서 소위 프로토-에반게리온이라 불리는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을 한다. 뱀은 마리아의 발꿈치의 씨를 상하게 할 것이고, 마리아의 씨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다.

하나님만이 창조주, 유지자,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분은 없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와 그의 자손과 구원의 관계, 즉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씨가 구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갈라디아서 3:16).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에게서 12 지파를 이끌어 내시며, 그 중 한 지파에서 구속자 유다를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미가 5:2). 때가 차서 그는 정확히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죄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죄인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를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후, 예수께서는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로 죄, 죽음, 악령, 마귀, 지옥을 이기셨습니다(골로새서 2:10, 히브리서 2:15).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최후의 심판에서 인간과 천사를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영원한 운명으로 보내시고, 모든 것을 그의 지배 아래 두실 것입니다(고린도전서 15:28, 빌립보서 3:21). 하나님께서는 새 땅에서 그의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어 슬픔, 고통, 죽음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 저는 이것을 성경 이야기 속의 신에 대한 결론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5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이르기를, 보라,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는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요,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죽음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애통함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된 구절에서 신으로 넘어갑니다. 체계화하기 전에, 이 구절과 다른 구절에서 신학을 도출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본문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을 전능한 창조주로 묘사하는 구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I Am은 자유와 충실함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는 사랑스럽고, 정의롭고, 질투하는 입법자입니다. 그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위대하며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의 백성을 위해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는 그들의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언약을 지키시는 위대하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입니다. 그는 죄를 벌하시고 사랑이 풍부한 언약의 주님, 야훼입니다.

그는 우리의 용서하고 확고한 아버지입니다. 사실, 그는 성부, 성자, 성령의 거룩한 삼위일체입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라고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명령하시는 왕이시며, 존재하라, 창조물은 계속해서 복종합니다. 창세기 1:3, 6절, 14절, 또한 9, 11, 20, 24,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독특하고 창조물과 다릅니다.

그는 태양, 달, 별, 동물,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는 그들이 아닙니다. 이 주권적이고 독립적인 왕도 또한 좋습니다.

그는 자신이 창조한 것이 선하고, 심지어 매우 선하다는 것을 봅니다. 1:4, 1:10, 12, 18, 21, 25, 1:31.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인격적이며 복잡하게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활동적이며,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타락 전과 후에 세상과 상호 작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이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창조하고, 창조물이 의도된 목적을 성취하도록 인도합니다. 그 중 일부는 방금 읽은 것입니다. 1-26에서 31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진실은 그가 자연주의와 무신론에 반대하는 모든 것의 유일한 창조주임을 보여줍니다.

자연주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자연이라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자연주의는 반초자연주의입니다. 반초자연주의의 반대입니다.

초자연주의의 반대입니다. 자연주의는 반초자연주의입니다. 무신론은 물론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이집트, 고대 근동, 그리고 오늘날의 수많은 다른 신들과 대조되는 참신입니다. 그는 애니미즘과 범신론에 반하여 자신의 창조물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애니미즘은 모든 것에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실체에는 영이 있습니다. 범신론은 신과 그의 창조물을 혼동합니다. 사실, 모든 것은 신이고 신은 모든 것의 일부입니다.

신은 범신론에서 더 온건한 발전인 범신론에 반하여 무한합니다. 그것은 신이 모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신의 몸이며, 신은 모든 것 안에 있으며, 그는 세상이 신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세상과 그런 관계를 맺습니다.

신은 인격적이고 신앙에 반대합니다. 신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 버렸다는 견해는 그 자체로 돌아가는 원리를 내장했습니다. 늙은 시계공이 그 예입니다.

신이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작동시켰고, 그는 아마도 다른 더 중요한 일에 착수했을 겁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중 일부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이었고, 다른 일부는 신앙심이 깊은 신자였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예수의 도덕적 말씀을 담고 있는 제퍼슨 성경으로 유명하며, 복음서에서 기적을 삭제했습니다. 신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신앙심이 주장하는 것과 신앙주의가 주장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신은 인격적이고 활동적이며, 신과 그의 세계와의 현재 관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신과 그의 세계를 혼동하는 범신론도 아니고, 신을 그의 세계와 분리하는 이신론도 아닙니다. 오히려 창조와 섭리로, 신은 그의 세계에 존재하며, 그것을 보존하고 자신의 목적을 향해 인도합니다. 보존과 통치는 모두 섭리의 두 측면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듯이, 그는 그의 세계 위에 초월적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며, 그는 그의 세계에 임박하고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신입니다. 신은 그의 창조물과 분리되어 있으며, 애니미즘과 범신론에 반대하고, 그는 범신론에 반대하여 무한하며, 그는 인격적이고 데이즘에 반대하여 활동하며, 그는 이원론에 반대하여 선택합니다. 이원론은 신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선과 악은 영원한 원리라는 관점입니다.

스타워즈는 이 신학을 반영하고, 스타워즈는 조로아스터교의 세계관과 우주론을 반영합니다. 기억하세요, 포스에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습니다. 좋은 스토리가 될 수는 있지만, 신의 거룩한 진실은 아닙니다.

신과 그의 본성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윤곽을 정해 주었고,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신과 그의 본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13과 14는 신 교리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이 모세를

임명하여 그의 백성을 구원하게 했을 때, 모세는 신에게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신은 “나는 나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야 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보내졌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영원히 내 이름이다.

이것이 내가 모든 세대에서 기억되어야 할 방식이다. 출애굽기 3장, 14장, 15장. 시내 언약, 모세 언약, 옛 언약의 중재자인 모세에게 주어진 이 계시는 중대한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영원히 선포하시기 때문이다.

첫째, 하나님은 자신이 I am(나는 존재한다)임을 선언합니다. 그는 12절에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에 포함된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여 그들에게 언약의 신실함을 약속합니다. 둘째, I am(나는 존재한다)은 동사 to be(존재하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는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를 드러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에게 의지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I am을 Yahweh로 대체합니다. 야훼는 대문자 LORD로 번역되고, 때로는 대문자 GOD로 번역됩니다. 이는 위클리프 이래로 성경 번역에서 성경적 관례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존 와이클리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은 자신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백성과 언약을 지키는 주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의 백성에게 충실합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의 주요 언약이며,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 새 언약이 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의 백성에게 자신을 헌신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그의 백성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서 하나님은 또한 십계명에서 자신의 본성을 계시합니다. 이 유명한 진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과 사랑을 강조하는데, 모세에게 한 그의 말씀이 보여주듯이요.

“너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일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업고 내게로 인도한 것을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19:4.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압제자들을 몰아내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을 그들의 구속주라고 밝히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노예의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 2절. 하나님께서 축복하고자 하시는 뜻은 벌하고자 하는 그의 욕망보다 더 빛납니다. 그는 몇 세대, 3, 4세대를 벌하실 수도 있지만,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 세대에게 충실한 사랑을 보이십니다.

그는 판단하지만 루터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적절한 일은 판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이상한 일입니다. 그는 판단하지만, 그의 적절한 일, 그의 마음의 일, 욕망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인간의 책임은 성경의 가르침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지만, 현실적이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경배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자신의 독특성과 최고성을 선언하십니다(3절). 영으로서의 하나님의 본성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물리적 표상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4절). 하나님만이 경배받을 만한 유일한 분입니다.

그는 우리의 애정에 대해 적당히 질투하며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자들을 심판합니다(5, 6절).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다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7절). 그는 쉬신 창조주이시며 그의 백성이 그의 공급과 주권을 존중하며 쉬기를 원하십니다(8-11절).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백성에게 가족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기를 기대하십니다

(12절). 그는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이시며 그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누구도 살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13절).

하나님은 선하시어 결혼을 허락하시고 간음을 금하십니다(14절). 하나님은 진실하시어 거짓 증언, 거짓 증언에 반대하십니다(16절). 그는 관대하시어 우리에게 충분한 것을 주시고, 그가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훔치거나 탐내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출애굽기 20장 15, 17절).

출애굽기 19-20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본성에 따라 살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분의 거룩함은 우리의 거룩함에 반영되어야 합니다(19:5, 6). 그분의 보편적 주권은 우리의 보편적 사명을 형성합니다(5절, 6절). 그분의 본성은 우리의 예배를 형성합니다(20:3-11). 그분의 선함, 관대함, 진실, 사랑은 우리의 예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것들은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구절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3,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일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내게로 데려온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보배로운 소유가 될 것이다. 온 땅이 나의 것이요,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말씀이다. 주목할 만한 말씀이다. 소중한 소유는 왕의 특별한 소유를 말한다.

왕은 모든 것을 빚졌지만, 왕은 자신에게 간직한 보물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느님은 온 땅의 주님이십니다.

그가 말한 것은 정확히 그겁니다. 온 땅이 내 것이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그의 소중한 소유이자 제사장들의 왕국으로 택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선교사가 되어 고대 근동 전역에 그의 이름에 대한 지식을 퍼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명에 실패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선교사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전파하는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하나님과 그의 왕국에 큰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거룩한 민족입니다. 다른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신 그대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신약성서 연구에서 우리는 그것을 지시적, 명령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그의 백성이며, 그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임무에 크게 실패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구절을 조사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다른 곳에서 물의 깊이를 보기 위해 성경적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5~8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성경의 어떤 구절만큼이나 중요하며, 나머지 성경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출애굽기 34장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기초적인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달라고 요청한 후, 당신의 영광을 보여 주십시오. 내 말씀입니다.

신은 아무도 내 얼굴을 보고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는 모세에게 그의 등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언어는 신이 모세에게 그를 엿보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모세를 그 자리에서 죽일 만한 완전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은 은혜롭게 그에게 부분적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33:21-23에서 그는 그를 바위 속에 숨기고 손으로 덮고 지나가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뒤를 봅니다. 말하자면 그의 등 뒤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작은 계시. 모세는 옛 언약의 중재자로서 존경을 받는다. 그러자 하느님은 자신의 이름을 선포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성격과 정체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적 증거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이름과 정체성을 선포하시고, 저는 Christian Standard Bible에서 출애굽기 34:6~7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그를 도와 쓴 Christopher Morgan의 Systematic Christian Theology 책에서 따온 것이라고 말했어야 했고, 그것은 출판사 Broadman and Holman B&H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그들의 Christian Standard Bible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대체로 좋습니다.

몇몇 곳에서는 좋지 않을 때 ESV를 인용하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번역입니다. 저는 ESV를 선호합니다.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4:6과 7,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신실한 사랑과 진실이 풍부하시며, 천 대에 이르기까지 신실한 사랑을 유지하시고, 죄악과 반역과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인을 벌하지 않으시지 않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녀와 손자에게 삼사 대까지 갚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4:6과 7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자비와 은혜로 가득 찬 언약의 주님인 야훼로 계시합니다. 그는 죄와 죄인들에게 분노하지만, 인내심이 많고 진노하기를 더디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거룩하고 죄를 벌해야 하며, 사랑과 신실함이 풍부합니다.

그는 불의, 반역, 죄를 용서합니다. 왜 세 가지 용어인가요? 세 개의 분명한 구획? 아니요, 아니요. 완전히 동의어인가요? 아니요, 하지만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어떤 신인지입니다. 그는 불의, 반항, 죄를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고 부모의 악한 행위를 계속하는 자들의 후손인 다음 세대를 벌합니다.

그런 생각이지만, 그는 그의 백성에게 천 세대에 걸쳐 언약의 신실함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거룩하신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럽고 은혜로우신가요? 그렇습니다 . 아멘.

우리는 전자를 부인하지 않지만, 후자는 강조점입니다. 후자는 마음입니다 . 요한복음 3장,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정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넘쳐흐르며, 그는 우리에게 한 언약의 약속을 지키는 데 끈기 있습니다.

시편 139편. 저는 시편 139편을 좋아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우리의 하나님이자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시편 99:5, 147:1-5. 99:5, 147:1-5.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를 그의 백성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보편적이고 개인적인 용어로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동시에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위대함을 노래할 때, 시편은 고대 이스라엘의 노래책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한 백성으로서, 단체적으로 그에게 속해 있고, 그는 그들에게 속해 있다고 선포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친밀하게 아십니다. 1-5절.

그는 그들의 일상, 오고 가는 것,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 전에 그들의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지식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을 때, 그는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조부모가 손주를 대하듯이 연민 어린 마음으로 그들에게 손을 얹습니다. 제 나이가 저를 드러냅니다.

시편은 계속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계시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것은 특이하게도 1 인칭 단수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신이 나와 함께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동으로 노래하듯이, 그것은 집단으로서의 그들에게 사실이지만, 집단 내에서 신의 은혜를 아는 모든 믿는 마음에도 사실입니다.

7-12절.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는 나와 함께 어디에나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구름 위로 높이 올라가거나 무덤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도 신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신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어둠 속에 숨으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신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그는 편재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그의 손 안에 붙잡아 주십니다. 다시 한번 개인적인 접촉이 있습니다.

얼마나 시편인가! 시편 기자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창조주이심을 기뻐하며 계속합니다. 그는 우리가 형태가 없을 때를 보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우리를 짜 맞추셨습니다. 시편 139:13, 16.

이것은 자궁 속의 아이와 자궁에서 아이로 태어난 인간에게 인격의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고 경이롭게 만드시고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매일을 계획하십니다. 시편 139, 14, 16편.

이 놀라운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는 전지전능하고, 어디에나 존재하며, 모든 것의 창조주이며, 거룩합니다. 전지전능하고, 편재하며, 전능한 창조주이며,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데이비드는 이러한 진실을 개인화합니다. 신은 전지전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나를 말합니다 .

그는 어디에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심지어 나와도 함께 있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태중에서 우리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들이 있어서 신에게 감사합니다.

그는 적을 심판할 거룩한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을 확신시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그와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다고 말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하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기시켜 주며, 사실 그는 우리의 개인적인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

그는 그뿐 아니라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헌신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그가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았든 모든 것을 창조했든, 그의 성품 자체에서 거룩하고 사랑스러우시며 , 그가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그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보존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으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저는 당신을 높이며, 저의 하나님, 왕이시여, 당신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저는 매일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토록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145:1, 2. 21절. 내 입이 주님의 찬양을 선포하리이다.

모든 생물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무궁토록 찬양할지어다. 더욱이 이 시편은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 이는 “주님은 위대하시고 크게 찬양받으시며 그의 위대함은 헤아릴 수 없나니”라는 점에서 적절하다.

3절. 다윗은 하나님의 많은 완벽함을 찬양하는데, 여기에는 위대함(3~6절), 의로움(7, 17절), 자비로움(9절), 권능(4, 6, 11, 12절), 신실함(13, 17절)이 포함됩니다. 그는 출애굽기 34:6, 7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친절함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신실한 사랑이 크십니다.” 시편 145:8.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의 관대함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주님은 넘어지는 모든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는 압제받는 모든 자를 일으키시며, 모든 눈이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그들에게 적절한 때에 음식을 주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시편 145편 14절부터 16절. 하나님은 신성한 왕이시다. 1절. 화려했고 영광스러운 위엄으로 장식되어 있다.

5절. 그는 경외로운 일을 행하기에 강력합니다. 6절. 그는 선함이 풍부합니다. 7절. 그는 모든 사람에게 선하고 모든 피조물, 특히 동물에게 관대하며, 동물이 그의 열린 손에서 먹을 때 영양을 축복합니다.

8, 15, 16절. 영광과 화려했으로 가득 찬 그의 왕국. 11, 12절. 그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13절. 그는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다르게 반응한다.

그는 가까이 계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을 보존하십니다. 17절에서 20절. 그러나 그는 모든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20절.

느헤미야 9장.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유배민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 서기관 에스라는 율법을 읽었고, 사람들은 울고, 고백하고, 경배함으로써 응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 역사와 그들의 지속적인 반역에 초점을 맞춘 놀라운 기도를 백성을 인도합니다.

레위 사람들의 찬양은 넘쳐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 당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느헤미야 9:5. 그들은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의 창조주이심을 찬양합니다.

5절과 6절. 그들은 그가 그의 백성을 은혜롭게 대하신 것,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 페르시아의 포로 상태에서 그들을 땅으로 돌려보내신 것에 대해 그를 찬양합니다. 레위인들은 그 사이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것, 율법을 주시고, 광야에서 기적적인 공급과 인도를 베푸신 것, 그들이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신 것,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신 것, 포로 상태에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구속 역사의 요약입니다.

주목할 만합니다. 느헤미야 9장.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위에 대한 연작 옆에는 그의 백성의 방탕한 행동 목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악하고, 거만하고, 고집이 세고, 불순종하고, 반항적이고, 우상 숭배적이고, 모독적이며, 살인적입니다. 16, 18, 26, 29, 35-37, 33-35절.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8절과 33절. 충실합니다. 8절과 15절과 33절. 용서하고, 은혜로우며,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십니다. 충실한 사랑이 풍부합니다. 17절.

출애굽기 34장 같나요?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심, 30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죄 고백에 따라 그들은 서면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을 맺습니다.

느헤미야 9:38, 10, 29. 그리고 은혜로운 언약을 지키시는 위대하고 강력하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라. 9, 32.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니엘 9장.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기록에서 예루살렘의 황폐화에 걸리는 해가 70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 9장 2절. 따라서 그는 기도와 고백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의 죄를 인정하며 마음을 쏟아낸다. 그들은 악하게 행했고(15절),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10, 11, 14절). 하나님께 대한 불충성과 반역(7, 9절).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부하고(6절), 회개하지 않은 채로 있다(13절).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대중의 수치에 내주셨습니다. 7절과 8절. 주변 민족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16절. 다니엘은 위대하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 백성의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운 언약에 충실하신 주님께 간구합니다. 4절. 그는 의로우십니다. 7, 14, 16절.

그리고 자비와 용서로 가득 차 있다, 9절과 18절. 이것은 그가 강한 손으로 그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출한 것으로 입증됩니다. 다니엘 9장 15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만을 받을 만하지만(16절), 다니엘은 하나님께 그들과 그들의 파괴된 성전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청원을 들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17절).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인용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근거하여 당신 앞에 청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풍부한 자비에 근거하여 청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들으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듣고 행동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 자신을 위하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당신의 도시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이름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19절. 우리가... 계속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 몇 개밖에 없거든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유명한 모범 기도에서 여섯 구절 영역을 다루셨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즉 그분의 인격이 거룩하게 존중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9절).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이 오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왕국이 오기를 기도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버지들에게 하늘에서 땅에서와 같이 누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넷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손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다섯째,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빚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처럼 말입니다(12절). 여섯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우리가 걸려 넘어질 곳으로 인도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우리는 악마와 그가 우리를 유혹하는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야 합니다(13절).

이 간단한 기도는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의 왕국이 오는 것, 그의 뜻을 행하는 것, 우리의 일용할 양식, 지속적인 용서, 그리고 악에 대한 승리를 다룹니다. 이것들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측면이며, 우리가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지상에서 살면서 그분을 공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고전적인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는 우리 아버지, 그의 백성의 언약의 주님,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관계를 맺는 개인적이고, 사랑스럽고, 권위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초월적이고 땅에서 임박해 있습니다. 그는 거룩하지만 이 죄 많은 세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왕국을 가진 왕입니다. 그는 의지가 있고 주권이 있어서 그것을 성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선하고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돌보아줍니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는 모든 단계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니다. 저는 유다서 20절과 21절을 간략하게 다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몇몇 성경 구절에 대한 이 조사의 좋은 결론이며 삼위일체라는 주제에 대한 훌륭한 소개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한 번 전해진 믿음을 위해 싸우라고 촉구합니다. 유다서 3절. 경건치 못한 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관능으로 바꾸어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확실한 정죄를 지적합니다(5절~19절).

그런 다음 그는 독자들에게 재림의 빛 속에서 살면서 믿음,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수하라고 촉구합니다(20, 21절). 유다가 독자들에게 확고함을 권고할 때 그는 삼위일체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며, 인용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20, 21절). 유다는 삼위일체의 세 인격이 모두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각자의 이름을 오직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역할에 두어 이를 행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 경우에는 성령 안에서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경우에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 경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신성을 가르칩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 자체 또는 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 성경적 사색입니다.